

삼국시대 : 등잔 추정 이형토기 다공식(多孔式) 토기 등잔 ⑥



①

사진① 삼국시대 다공식(多孔式) 토기 등잔은 1992년 온양민속박물관 개관 14주년 특별전 때 김태일(金泰一) 소장(所藏) 문화재도록(文化財圖錄)에 실린 자료이다. 온양민속박물관 김태일 소장 특별전은 주로 토기와 도자기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자료는 당시 질 피리, 즉 도훈(陶燭, 陶燭)으로 소개되었다. 생긴 모양이 마치 훈(燭)이라는 악기와 비슷하여 붙인 이름인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악기 훈과는 전혀 별개의 유물이다.



②

사진②와 사진③ 악기 훈은 '명구(鳴球)'라고도 부르며, 기와 흙을 구워 만들거나 황토에 솜을 섞어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도자기로 만든 것을 쓰며, 모양이 저울추·계란·공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저울추 모양에 겉은 검은색이고 윗부분 중앙에 입김을 불어 넣는 취구(吹口)가 있다. 손가락을 짚는 지공(指孔)은 앞면에 3개, 뒷면에 2개 등 모두 5개이다. 5개의 구멍을 다 막으면 황종음이 나고, 다 열면 응종음까지 모두 12울(律)의 소리가 난다. 음색은 어둡고 부드러우며 낮은 소리를 내는데, 고려 예종 11년(1116년) 송나라에서 대성아악(大晟雅樂)을 들여올 때 함께 유입된 아악기이다. 그 뒤 조선 세종 때 옛 제도에 맞게 개조한 것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시경(詩經)에 지(箎)와 더불어 형제가 우애가 좋아 뜻을 합하는 것에 비유되어 쓰이기도 하며, 지금은 빠른 선율의 연주가 어렵고 음량도 작아 전통음악에서는 쓰임새가 적으나, 창작 국악곡에서는 가끔 쓰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브리태니커사전〉 훈(燭) 설명 참조). 서양에서는 이를 오키리나(Ocarina)로 부른다.




③

사진 ① 다공식토기등잔[多孔式土器燈盞]/ 삼국시대/ 지름 8cm/ 출토지 모름/ 개인 소장/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87쪽.
 사진 ② 도훈[陶燭] 중국, 206 B.C. - 220 A.D./ 길이 10.5cm, 높이 4.8cm, 폭 7.1cm/ 메트로폴리탄 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사진 ③ 우리나라 <문묘제례악>에 쓰이던 도훈[陶燭] 모습



약기 훈과는 별개로 사진① 다공식 등잔은 삼국시대 이슬람과의 교역 관계 속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출처를 몰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신라사회와 이슬람과의 교역 및 교류 관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정황적 이해는 가능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문헌자료, 신라지역 고분 등에서 출토된 유물자료, 그리고 중세 아랍문헌의 기술내용에 따르면 아랍·이슬람제국을 위시한 서역(西域)으로부터 향료, 유리공예품, 모직물, 보검, 약기 등 다양한 문물이 전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일찍부터 실크로드(3대 간선과 5대 지선)를 통한 문명교류의 한 주체로서 그 일익을 담당했는데,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발굴되는 여러 서역 문물은 아랍·이슬람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신라 경주가 실크로드 오아시스로의 동단(東段)이었음을 실증하고 있기도 하다¹⁾.

사진①의 다공식 등잔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유물이 이슬람 매멀루크(Mameluck, 1200-1500 A.D.) 왕조시대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평강 성서유물 박물관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등잔이 있다. 사진④가 그러한데, 사진①처럼 등잔 가운데에 구멍(透孔)을 중심으로 6개의 작은 구멍(透孔)이 6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등잔 가운데에 뚫려 있는 구멍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구멍이며, 주변 6개의 구멍은 심지를 낸 구멍이다. 당시 기름은 식물성 기름으로 올리브기름을 사용하였으며, 심지로는 아마(린넨)나 파피루스, 말린 갈대와 같은 섬유질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을 말려 신타래처럼 꼬아서 사용하였다. 심지는 그 자체가 불에 잘 타지 않으면서 기름 또한 잘 빨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실과 같은 섬유재질이 용이하게 쓰였다. 특히, 아마(亞麻)와 같은 섬유는 질기고 수분의 흡수 및 발산이 다른 재질보다 빠르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열전도가 잘 되는 등 심지로서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심지의 사용 방법이 사진⑤이다.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사진 ④ 매멀루크 시대 등잔[Mameluck Lamp]/ 1200-1500 A.D./ 높이 2.1cm, 길이 8.8cm/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소장품

1) 정수일 지음, <실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2002, 595쪽.